

# 영어음소 인식능력과 청해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영어이름 받아쓰기 실험을 중심으로

안 현 기  
(서울대학교)

Ahn, Hyunkee.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emic awarenes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an experimental study based on the English name test.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0, 39-48.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emic awarenes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For this particular research purpose the English name test and TOEFL L/C tests were employed and a total of 34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 English name test consisting of relatively unheard 26 English names was specially designed and administered for the participants to depend on their own phonemic awareness ability, not applying their cognitive prior knowledge, when they transcribed the names using the phonetic alphabets. The statistical result showed that the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550\* and it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303. This result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phonemic awareness ability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overall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and implied the need for implementing the so-called bottom-up method for developing students' phonemic awareness ability at primary or secondary school levels.

## I. 서론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듣기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 들어오는 소리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Rivers et al., 1976). 청해과정은 크게 대별하여 음성해독(decoding)과 이해(comprehension)라는 두 개의 분리된 그러나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음성해독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다. 소리를 음성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의 선행 조건이며 청해의 기본 조건이다. 이 능력의 기본은 단어가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음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음소인식 (phonemic awareness) 능력이다 (Cunningham, 1988). 모국어의 음소구별능력이 고착화된 이후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의

음소를 청각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학습자가 모국어의 비슷한 음소에 외국어의 음소를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다 (Leather, 1999). 이와 같이 모국어로 없는 음소를 청각적으로 식별하는 능력(phonemic awareness)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 특히 청해능력의 배양에 기본요소로 작용한다.

음성신호 해독을 출발점으로 삼는 영어청해의 상향처리과정(bottom-up process)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경우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 연구의 경우 음소인식능력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읽기와 쓰기와의 관련성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음성신호 해독과정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음소인식능력이 어느 정도로 영어청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생소한 영어이름을 듣고 음성기호를 사용하여 전사하는 영어이름 받아쓰기실험과 Toefl의 청해능력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두 가지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목적인 영어음소인식능력과 영어청취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 II. 모국어 듣기과정 이해

외국어 듣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모국어 듣기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국어 사용자들은 언어장애가 없는 한 모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의사소통은 물론 말을 하는 과정과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의 성격상 듣는 측면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어떻게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히 설명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 보기로 한다.

$$\text{Perception} = f(\text{Signal, Knowledge})$$

위의 공식에 따르면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란 뇌에서 이루어지는 인식(perception)의 과정으로 음성신호(signal)와 지식(knowledge)을 두 개의 변수(variable)로 취하는 함수(function)의 결과물로 기술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함수 중 듣기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음성신호이다. 음성신호는 사실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음성신호의 불완전성은 음성학계의 고전적인 두 가지 문제인 신호 가르기 문제(segmentation problem)와 신호의 불변성 문제(invariance problem)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호 가르기 문제는 연속되는 음성신호를 음소(phoneme)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별 신호로 정확히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관찰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음성발화시 발음의

편의와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하는 동시조음(coarticulation)에 의해 유발된다. 예를 들어 ‘남’이라는 소리는 /ㄴ/, /ㅏ/, /ㅓ/이라는 세 개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한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성신호의 측면에서 볼 때 세 소리의 경계가 연이어 놓인 세 개의 구슬처럼 뚜렷이 나뉘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이 세 음소에 대응되는 소리가 서로 섞여 있으며 경계도 모호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두 번째 문제인 신호의 불변성 문제도 발화시 항상 수반되는 동시조음에 의해 비롯된다. 동시조음을 가정할 때 특정음의 발음은 주위에 어떤 음이 오느냐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 된다. 연이어 올 수 있는 음의 조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음소의 실제 발음은 주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런 현상으로 인해, 주위 음과 관계없이 특정 음소에 대응되는 불변의 소리 특질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소리 고유의 특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즉, 신호의 불변성 문제가--음성학계의 해묵은 과제가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성의 신호로서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이 어떻게 소리 언어를 듣고 그 짧은 시간에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이 문제는 앞의 공식이 제시하듯이 청해 과정이 소리를 기반으로 하되 뇌에 저장된 다양한 지식이 의미 추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심리적 인지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지식이 청해 과정에 개입하는 증거로 인용할 수 있는 예는 매우 많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우리는 야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심하게 왜곡된 소리도 마치 제대로 듣는 것처럼 착각하여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들리지 않는 소리(phantom sound)의 인지와 관련해 잘 알려져 있는 예는 전화선을 통해 들리는 마찰음 [s]의 인지이다. 전화선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약 300-3,000Hz의 주파수 대역만을 허용한다. 이 주파수 대역에는 인간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소리 정보가 포함되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소리가 바로 마찰음 [s] 혹은 [ㅅ]이다. 이 소리들은 이 주파수 대역대에서는 왜곡되거나 심지어 소리 정보가 완전히 생략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전화 대화시 이 문제를 깨닫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뇌는 기존에 저장된 지식을 활용하여 이 없어진 소리의 정보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듣는 것이다. 우리는 뇌에 저장된 단어 중에서 대화의 맥락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추출하여 듣고 또 이런 과정은 청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한된 전화선 주파수 대역대의 활용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해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청해 과정에 개입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음 수준으로 제기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언어학적 접근, 화용론적 접근, 심리

언어학적 접근, 언어발달 및 언어습득 관점에서의 접근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현재까지의 학문적 성과는 위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기에 여전히 미흡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점이 있다면 소리언어의 청해에 있어 지식이 매우 광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Rost(2002)는 청해를 '상황효과를 경험하기(experiencing contextual effects)' 라고 정의할 정도로 상황에 따른 다양한 효과와 그 효과의 경험적 축적을 강조하였다. 이는 듣기란 문장의 명제적 의미 추출의 단계를 넘어서서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해야 하고 또 상상과 감정입입 등을 통한 문장외적 의미 창출의 단계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청해 경험의 오랜 축적이 요구되는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심리행위임을 의미한다.

### III. 외국어로서의 영어듣기과정 이해

지금까지 모국어화자가 모국어를 들을 때에 작동하는 청해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영어학습자의 청해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의 청해는 모국어의 청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대별하여 소리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음성해독(sound decoding)과 해독된 음성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comprehension)라는 두 개의 분리된 그러나 강력하게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청해에 지식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영어학습자가 영어습득과정을 통해 다음에 올 단어나 어구를 짐작하여 미리 대비한다고 Neisser(1976)가 보고하였으며, 영어청해능력 향상은 소위 음소인식능력의 습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지식 활용도 중요하다고 Ur(1984)은 주장하고 있다. Chung(2000)의 연구도 선행지식(prior knowledge)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영어청해에 분명히 효과적임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다. Chung & Ahn(2000b, 2002, 2005)은 피험자들이 소리정보와 맥락정보가 모순을 보일 때 보다 맥락정보에 의존하여 영어청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음성해독 능력 없이 지식만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영어청해과정은 당연히 불완전하다. 이러한 음성해독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청자의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는 감지(detection)의 단계를 거쳐 변별(discrimination)의 단계를 통과하며 최종적으로 확인(identification)의 단계에 이른다. 여기서 감지란 소리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며 소리지각의 가장 기본 단계이다. 변별은 감지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로서 두 소리를 들었을 때 같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확인은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단계까지 최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음소인식(phonemic awareness) 능력이라 칭한다. 정상적인 청해의 경우라면 이와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된 음성해독 단계를 거쳐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처리과정에 해당하는 이해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음소인식능력은 청해과정의 기본 단계로서 들은 것을 별개의 음소로 구분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만약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들은 소리를 그대로 재생할 수 없다. 음소로 분리할 수 있어야 음소를 조합하여 들은 대로 소리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들을 경우 들린 소리를 되풀이 할 수 없는 것도 음소인식능력의 부재로 인한 경우이다. Gillman & Moody (1984)가 지적하였듯이 음소인식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발화된 소리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청해가 수월해지는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는 음소로 분별되지 않는 소리가 음악소리같은 무의미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청해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들리는 소리를 음소로 해독 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의 선행 조건이며 청해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음소인식능력이 전체 영어 청해능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본 논문이 시행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IV.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피험자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재학생으로 특정 학기에 저자로부터 '영어응용음성학' 교과목을 배운 학생 중 실험에 결격사항이 없는 34명이 최종 피험자가 되었다. '영어응용음성학'을 배운 학생이 대상이 된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영어이름을 듣고 이를 음성문자(phonetic alphabet)로 옮길 수 있는 영어이름 받아쓰기 테스트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 체계적으로 음성문자를 배우게 되므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된다.

##### 2. 실험 종류 및 내용

우선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통해 피험자의 나이, 성별, 영어를 학습한 총 기간(학교에서만만 아니라 사교육이나 개인 학습을 통하여 영어를 공부해 온 시간도 포함), 외국에서의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추후 외국에서 일 년 이상 거주한 학생은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a. 나이: 만 \_\_\_\_\_ 세  
 b. 성별: 여성 남성  
 c. 영어공부를 지금까지 얼마나 해 오셨는지 그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만 \_\_\_\_\_ 년  
 d. 외국에서 사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만약 사진 적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사셨습니까? \_\_\_\_\_  
 만약 사진 적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만 \_\_\_\_\_ 년 \_\_\_\_\_ 개월

영어이름받아쓰기 시험 문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완성하였다. 피험자의 음소인식 능력만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들어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믿어지는 영어이름 약 26개를 사전에서 선택하였다. 만일 피험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들려주면 음소인식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뇌에 저장된 지식에 의존하여 인지될 수 있으므로 흔히 쓰이지 않는 *Gillaume*이나 *Verna* 같은 이름으로 총 26개의 이름을 선택하였다. 또한 실험결과가 통계적으로 신뢰되도록 오직 2음절로 구성된 이름만을 선택하였다. 이후 이름의 철자 및 발음기호를 미국출신의 원어민에게 보여주고 녹음하였다. 이 원어민은 발음기호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발음기호대로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사람라고 저자는 판단하였다. 영어 이름 녹음은 저자의 입회와 지도하에 조용한 방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피험자들의 영어청해능력은 기존의 TOEFL 시험의 L/C 테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시험은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화, 강의, 설명문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

### 3. 측정

영어이름받아쓰기 시험은 2음절로 이루어진 총 26개의 영어이름을 듣고 피험자들이 음성기호로 받아 적는 방식이다. 피험자들이 정확히 적은 자음과 모음마다 1점을 부여하였으며 만점은 133점이다. TOEFL의 듣기시험 문제를 차용한 영어청해능력시험은 총 50문항으로 한 문항 당 1점씩 채점하여 계산하였다.

### 4. 실험 절차

우선 사전 질문지에 피험자들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어이름받아쓰기

시험을 실시하였다. 녹음을 통해 26개의 영어이름을 두 번씩 들려주고 이를 음성기호로 전사하도록 하였다. 이 절차가 끝난 후 26문항을 다시 한 번씩 들려주어 피험자들이 교정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영어청해능력시험을 실시하였다.

### V. 실험결과 및 분석

다음은 영어음소인식 능력과 영어청해능력 측정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나타내는 표이다. 본 논문의 모든 통계치는 SPSS(version 12.0)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평균 (단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어음소인식능력	89.85 (133)	12.38	61	113
영어청해능력	32.09 (50)	7.60	19	48

다음은 본 연구의 주목적인 영어 음소인식 능력과 영어청해능력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이다 (참고, 백순근 2004).

	영어음소인식능력	영어청해능력
영어음소인식능력	1	.550**
영어청해능력	.550**	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관관계는 0.550이라는 정적인(positive)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측정결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wo-tailed test). 영어청해능력이라는 종속변인과 영어음소인식능력이라는 독립변인사이의 상관계수가 0.550임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0.303(=0.550*0.550)$ 임을 뜻하며, 이는 영어청해능력이라는 변인의 전체 변량 중에 30.3%를 영어음소인식능력이라는 변인이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청해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상관관계수치와 결정계수수치가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님은 자명하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영어음소인식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영어청해교육에 대해 매우 큰 시사점을 전하고 있다.

## VI. 토의 및 결론

외국어로서의 혹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음소인식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한 바 있다. Samuels(1988)는 외국어의 음성해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청각적 인지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i (1988)의 연구 또한 소리를 음소단위로 청각적으로 구분하는 연습이 포함된 훈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Chung & Ahn(2000a)는 파닉스(phonics) 교육을 통해 음소인식 훈련을 받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어린 학습자들이 음소인식능력에 있어 중등학교 영어교사 집단에 비하여 결코 못지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Lee(2006)는 고등학교에서 영어청해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그룹의 청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음소인식능력 배양 교육이 보다 효율적임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어느 정도 음소인식능력이 있는 상위그룹에 비해 하위그룹의 청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형태중심교수방법 등의 소위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특히 영어에 대한 구두 입력자료(oral input)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음소인식사재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청해의 기본 능력인 영어음소인식능력이 영어청해능력과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이 제시한 이러한 통계결과는 보다 정확히 피험자의 영어음소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타 논문과 차별화되는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선다형식의 고르기 시험이 아닌 피험자가 보고 들은 대로 음성기호를 써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영어이름받아쓰기 실험은 피험자의 영어음소능력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측면에서 본 실험의 통계해석상의 신뢰도가 높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단, 본 논문의 주장에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험자 집단의 크기가 좀 더 커야 하고 피험자의 집단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성인집단에서 영어음소인식능력과 영어청해능력이 통계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음소인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시사를 강력히 함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함의가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백순근 (2004).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육과학사.
- Choi, I. (1988). *The necessity of teaching English fast speech phenomena for better aural comprehension skill in the Korean contex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rbana, IL.
- Chung, H. (2000). The role of prior knowledge in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교육*, 55:2, 3-26.
- Chung, H., & Ahn, H. (2000a). Phonemic awareness: Is this a prerequisite of a consequence of learning to listen in L2? *응용언어학*, 16:2, 65-81.
- Chung, H., & Ahn, H. (2000b). Does Sentence Acceptability Play a Role in L2 Replication? *영어교육*, 55:4, 55 -74.
- Chung, H., & Ahn, H. (2002). Local Acoustic vs. Sentence Contextual Information: Which Plays a More Crucial Role in a L2 Word Recognition Test? *영어교육*. 57:3, 239 - 251.
- Chung, H., & Ahn, H. (2005). Does the role of contextual cues vary with L2 listening proficiency level? *영어교육*, 60:4, 3-21.
- Cunningham, A. E. (1988). *A developmental study of instruction in phonemic awaren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 Gillman, R. A. & Moody, R. L. M. (1984). What Practitioners say about listening: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17. 331-334.
- Leather, J. (1999). Second-language speech research: An introduction. *Language Learning*, 49, 1-56.
- Lee, K.-H. (2006). The Effects of Form-Based and Meaning-Based Teaching Methods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Listening Comprehens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 교육과 영어 전공 석사논문.
- Neisser, U. (1976). *Cognition and reality: Principles and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San Francisco: W. H. Freeman.

- Rivers, W. M., Azevedo, W. H., Heslin, W. H., & Hyman-Opler, R. (1976).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Span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t, M.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Listening*. Longman.
- Samuels, S. J. (1988). Decoding and automaticity: Helping poor readers become automatic at word recognition. *The Reading Teacher*, 41, 756-760.
-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